



1907년의 여수항 모습. 중앙동 구 항만인 이곳은 당시만 해도 전남관 밑까지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오동도 입구쪽 신항의 매립공사 장면.

사진으로 보는 미항 여수 100년

市, 사진집 연내 발간...6월까지 교육·행정·관광 등 DB 구축

빛바랜 사진 한 장 속에 담긴 1900년대 초 여수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수 중앙동 일대 시가지지를 최초로 앵글에 담은 '1907년 여수항'을 보면 지금의 전남관 바로 앞까지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 일대가 매립된 것은 1916년 10월 12일이었다. 여수시 군자동·고소동·동문동 일대에 자리했던 옛 전라좌수영성의 성문이 헐린 것도 이 때로 기록해 있다.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여수에 주둔한 미군함과 여수읍팀 간 야구경기를 마치고 서초등학교에서 기념촬영을 한 선수들도 만날 수 있다.

여수시는 3일 "1900년대 초 옛 여수 모습부터 '2012 여수박람회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여수역사가 담긴 사진을 모아 '미항 여수 발전사'를 연내 발간한다"고 밝혔다.

'미항 여수 발전사'는 사진 500~600여 장, 300페이지 분량으로 여수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각분야별 상·중·하 3권으로 제작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4년 여수 발전사가 발간된 후 여수 발전사를 담은

사진 자료집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며 "2012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달라진 여수의 발전 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시민의 애郷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진집을 만들기로 했다"고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될 미항 여수발전사에는 ▲1935년의 신항 매립공사 ▲1980년대 돌산대교 준공식 ▲전남관 경기장이 들어서기 전 모습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2012 여수박람회장 부지의 60여 년 전부터 조성된 개항 때까지의 모습을 담아 상전벽해를 실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옛 시가지와 교육, 행정, 관광 등 각 분야의 사진을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여수 발전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998년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통합 전 여천시와 여천군의 사진자료가 없어 옛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사진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에게는 미항 여수발전사가 담긴 DVD 등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했다./여수=임문택기자 mtim@

새해 새 설계

이성웅 광양시장

“무상급식 고교까지 전면 확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 광양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이성웅 광양시장은 2013년 계사년 시정 방향을 ▲광양 르네상스를 통한 매력있고 품격있는 도시 ▲행복한 복지를 함께하는 화목한 도시 ▲산업경제활성화로 풍요로운 도시 ▲쾌적한 녹색성장 도시 ▲장소농 육성을 통한 강한 농촌 육성으로 정했다.

매력있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 교육·문화·예술·체육진흥을 통한 광양시민상 정립, 광양문화재단 설립,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복안이다.

올해는 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가장 높은 878억원으로 편성했다. 행복한 복지를 위해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WHO 건강도시 요건 충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지표 달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일관되게 추진해 성숙된 기업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96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탄소소재 산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후방산업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그는 이와 동시에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관광산업



꿈과 희망을 다진 뜻깊은 해”라며 “특히 시민 각계 각층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백운장학기금 210억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교육투자로 도내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301만㎡(약 91만평)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7개 기업, 97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5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이뤄냈다.

이 시장은 “올해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한발 앞선 대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순신 대교 완전 개통,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등이 예정된 2013년에 광양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광양항 물동량을 300만 TEU로 높여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도 이 시장의 2013년 목표에 추가됐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이자 세계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며, 전 세계가 하나로 연동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광양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무한한 잠재력에 창의와 창조력을 접목, 광양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영랑 김윤식, 93년만에 휘문고 졸업

강진군, 내달 6일 명예졸업장 추서

한국 현대사의 거성 영랑 김윤식(1903~1950·사진) 선생이 모교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으로부터 93년만에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1919년 3월1일 기미독립운동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휘문의숙 졸업 기회를 상실한 김영랑 시인에게 다음달 6일 휘문고 졸업식장에서 명예졸업장이 추서된다.

김영랑 시인에 대한 휘문의숙 명예졸업장 추서는 강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휘문고 측에 추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다.

반의한 휘문고 교장은 “김영랑 시인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끼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 분에 대한 명예졸업장 추서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명예졸업장 추서를 계기로

김영랑 선생의 민족의식과 문학정신이 더욱 선양되고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교장은 “영랑 시인은 월탄 박종화 선생, 정지용 시인과 더불어 휘문의 문맥을 닦으신 분으로서 휘문의숙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그 분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하는 올해 졸업식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김영랑 선생의 휘문의숙 명예졸업장 추서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선생의 애국사상과 문학사적 위상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사업을 통해 영랑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랑 시인은 1903년 강진에서 태어나 1915년 강진보통학교를 거쳐 1917년 휘문의숙에 진학했다. 휘문의숙 재학시절이던 1919년 3월1일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자신의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강진에 내려와 독립운동(강진 4·4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생생문화재 시범사업

나주시 ‘우수’

나주시가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생생문화재사업 시범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해 사회·문화·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생생문화재사업 시범사업 육성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나주시가 ‘나주읍성권 복원사업’을 토대로 나주역사문화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 추진했던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라는 주제로 기획한 체험사업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총 4회에 걸쳐 16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낸 결과다.

/손영철기자 yjyson@kwangju.co.kr

보성아산병원, 독거노인 돕기 3천만원

보성 아산병원이 추운 겨울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 노인가구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보성군에 전달했다.

김종렬 보성 아산병원장은 “사회적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 설립이념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지역주민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아산병원은 보성군과 지난 2011년 1월 24일 협약을 맺고, 같은 해 약 1억여원을 보성군에 지원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민들레 집수리사업 21가구 5935만7000원, 저소득 자녀 교육 및 장학금 지원 3067만원, 다문화가구 진료비 지원 2928만7000원, 난방유 등 지원 2829만6000원 등 모두 1억4761만원을 보성군에 기탁,



기업의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한편 정종태 보성군수는 “1등 보성, 복지 보성을 구현하는데 보성 아산병원이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성=김영백기자 kyb@kwangju.co.kr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